<2013년 7월 2일 화요일 새벽말씀>
<2005년 9월 28일 수요말씀 중에서>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처음 온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봤습니까? 확실히 모르겠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지 그것이 관심사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듣는 대로 가식없이 말한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내 의향은 그렇다." 그렇게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나?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계를 생소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생소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마치 참기름이 냄새를 풍기는 것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적인 삶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야, 이건 특히 냄새가 난다. 너무 고소한 냄새가 난다. 야, 이건 특이한 액체다." 이렇게 생소하게 생각하는데 참기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생소하게 생각하나 하나님은 "당연하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먼저 듣고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한다!"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도 사랑하나? 선생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나? 저 여자 사랑하듯이 나도 사랑하나? 저 남자 사랑하듯이 나도 사랑하나?' 그렇게 생각하지요?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는 해준 것도 없는데...' 하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

참기름이 있는데, 누가 참기름에게 특별히 무엇을 해줘서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닙니다. 향수가 냄새를 풍기는 것은 향수이기 때문에 풍기는 것입니다. 그 향기를 더 많이 흠향하려면 막 코로 들이마시면 더 많이 향수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은 흡수하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누가 더 많이 하나님을 흡수하느냐? 이는 누가 더 많이 향수를 들이마시느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컷 맡고 싶다고 향수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코에다 대고 들이마시는 것

은 괜찮은데 입으로 마셔버리면 안됩니다.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아무리 좋아도 눈을 가지고 계속 보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는 마치 향수를 들이마시려고 하는 사람과 같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그와 같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느끼는 것입니다. 느끼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먹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남자가 있는데 여자가 너무 사랑스럽다고 입으로 막 뜯어먹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느끼느냐 했을 때 껴안고 이성관계를 가지면 가장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은 느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인데 얼마만큼 하나님을 느끼느냐 하는 것은 더 많이 느끼려고 하나님을 막 껴안는다고 하나님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으로 느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느끼는 것은 더 엄청납니다. 영으로 느끼는 것은 더 상상도 못하게 어마어마합니다. 영으로 느낄 때는 수십만 배 수백만 배 느껴집니다.

육으로 느낄 때는 제일 조금 느낍니다. 육체로 느끼는 것이 제일 작습니다. 정신으로 느낄 때가 큰 것입니다. 정신적인 세계는 육신으로 안 만져도, 수천미터 멀리에 있어도 느낄 때는 수백 배 수만 배로 느낍니다.

언젠가 선생님이 말씀했습니다. “상상하는 것은 한계가 없다. 수백만 배, 수천만 배 상상하게 된다. 그러나 실체 부딪혔을 때는 다른 것이다. 가령, 이 컵을 들어 보이면서 ‘너희들,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느냐?’ 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거 뭐 내 주먹무게만큼도 안 되겠는데요.’ 한다. 그러나 만져본 사람은 딱 들어보고 ‘어, 이거 가볍네.’ 한다. 그러나 이것을 상상할 때는 엄청난 상상을 하게 된다. 정신적인 사랑은 상상할 수 없이 엄청난 충격을 준다.” 했습니다.

그것은 호기심에 들어갑니다. 호기심들을 보면 상상도 못하는 호기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래의 앞날에 대해서 좋게 보고 선평할 때는 상상도 못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상상할 때는 엄청납니다. 그러나 실체 부딪혔을 때는 “에이, 이거 상상의 10분의 1도 안 된다.” 합니다.

여러분도 나를 안 만날 때 더 상상하게 되고 더 어마어마하고 더 엄청난 사고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 안 만났을 때는 상상도 못하는 신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딱 만났을 때는 상상한 것의 10배, 혹은 20

배, 혹은 300배 갖게 됩니다. 그러나 상상할 때는 3천 배, 만 배 상상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보지 않고 상상할 때는 여러 수십억만 배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얼마나 클까?' 하고 상상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인데 못돼도 사람의 30배는 되지 않겠는가. 30배가 되면 얼마나 클 것인가? 그렇게 클 것인가? 아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고 사람의 한 3배는 될 것인가? 그것도 사람 나름이지. 어린아이의 3배냐, 어른의 3배냐, 뚱뚱한 사람의 3배냐, 체격 좋은 사람의 3배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상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상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합니다. '우리 영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합니다.

영들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때 '우리보다 크겠지.' 하는데 영들은 키가 2미터 정도 됩니다. 2미터 20, 30입니다. 영들은 2미터 이상씩 됩니다. 상상하다가 실제로 보니까 그랬습니다. 2미터 80은 보통입니다. 대개 2미터 30, 40입니다. 영들의 키가 그렇게 큽니다.

하나님을 상상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했으니까 느끼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이 느끼느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에 대해서나 어떤 남자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려면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역사를 할 때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합니다.

'역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함께한다' 그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할 때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분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옛날 교회를 다닐 때 보면 맨날 설교만 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안가르쳐 주니까 잘 모르겠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존재자인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분이 확실히 알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유능합니다. 지구상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도대체 답답해서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느끼는 것입니다. 역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역사한다.” 하는 것은 “내가 너와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몸이 여러분들과 떨어져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역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선생님! 내 일 좀 도와주세요.”

아무 이름도 찾지 말고, 하나님도 찾지 말고, 예수님도 찾지 말고, 천사도 찾지 말고, 아무 친구도 찾지 말고 선생님만 부르면서 한번 일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역사해서 얼마만큼 잘되게 해주는가 보십시오.

나는 그곳에 없습니다. 내 몸은 여기 외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리적으로 되는 일인가, 실제 함께 해서 되는 일인가 한번 해보십시오. 전혀 불가능한 것을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달라고 하고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해보라는 것입니다. 마인드컨트롤을 해서 여러분을 이끌어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역사하는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체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상하다? 전혀 불가능한데 되었다!’ 할 것입니다. 내 육신은 여기 있는데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내 영이 가서 도운 것입니다. 육신이 있어도 못 돕는 것을 영은 합니다.

더 잘되려면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더 강한 자를 불러대야 합니다.

내가 왜 내 이름을 갖고 한번 해보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 시대의 일들을 도와드리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가서 도와줘라.” 했습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다릅니다.

“네가 가서 도와줘라. 내가 허락할게.”

“허락한 증거가 뭡니까?”

“말씀이지 않느냐. 내가 너와 같이 함께해서 설교도 하고 도와주기도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설교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뭐 그렇게 크다고 사람들이 들으러 오겠습니까. 지구상의 30개, 40개 나라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시간차가 있을 뿐입니다. 생중계를 해도 시간차가 있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기본적 시간은 갖고 있어도 지역마다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밤중이라 못 듣는 나라들은 녹화해 놓았다

가 들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이 말씀은 세계 수십 개 나라가 다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당세뿐 아니라 후대도 듣습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후의 사람들도 다 듣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자들이 연속해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듣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 새로운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로 불렀고 거룩한 사람을 만들려고 불렀습니다. 성지땅 월명동 내 고향을 만들듯이 이들을 만들어서 이상세계를 만들려고, 수천 배 수만 배 참된 이상적인 가치있는 인생을 만들려고 불렀으니 감격하고 감사하며 열심히 하게 해주시고, 오래된 사람들도 새로운 불을 붙여서 이상세계를 이루는 데에 충만한 은총을 주시고 의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와 사랑과 공의가 이들에게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